

## 신년사 (동일고무벨트)

동일고무벨트 구성원 여러분! 2023년 癸卯年(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변화무쌍했던 시장환경 속에서도 회사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진 노사문화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주신 천관욱 위원장님 이하 노동조합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올해는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에서 탈피해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며, 새해에는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좋은 일들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22년 경제에서 가장 큰 화두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미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며, 기준금리를 급격한 속도로 인상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한편 한미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압력을 축소하고자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역시 계속되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 대내외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은 지나온 시간에 대한 아쉬움 보다는 다가올 신년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러한 우려들을 과감하게 떨쳐 내었으면 합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위기가 수차례 있었지만, 우리 동일고무벨트는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내는 특유의 도전정신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일구어 낸 것처럼 현재의 위기는 또다른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험난한 여정을 거쳐왔던 2022년 한 해였지만 다양한 방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트랙영업이 단일 사업부로서 높은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국내영업, 해외영업도 각각 연초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였고, 베트남공장, 청도공장 등 해외사업장이 꾸준한 생산 증대를 통해 계획대비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는 등 국내외 사업 전반이 동반성장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한 해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성원 여러분! 올해 역시 대내외 여건이 불안정하고 경제지표도 만만치 않아 보이지만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는 말에 주저하기 보다는 위기 속에 찾아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몇가지 실천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경영 효율을 높여 핵심 사업의 체질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튼튼하게 구축된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사업의 성장이 이어질 때 인접시장으로의 확대도 가능합니다.

둘째,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해에는 구성원 간에 소통을 활발히 하고 일하기 즐거운 회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 될 것입니다, 소통과 즐거운 회사의 바탕에는 존중과 배려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소통이 활발히 일어나고 회사 생활도 즐거워집니다.

셋째, ESG 경영 활동 강화입니다. 이제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 시장과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와 협력회사와의 상생 경영, 인재 중심 경영, 지역사회 공헌 활동, 윤리·준법경영을 내재화 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ESG 경영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법/윤리경영을 회사의 핵심가치로 소중히 여기며, 이를 위하여 모든 임직원은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장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에는 정해진 목표 달성을 위한 역량의 집중이 필요하였으나, 현재는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유연한 태세를 정하는게 중요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는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강력한 돌파를 위해 구심점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결국, 다양성을 확보하면서도 강력한 돌파를 추진할 수 있는 일의 균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난 해 보여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2일

동일고무벨트 대표이사 이윤환